

봄호
2013. 03
NO.19
동물보호지

함께 나누는 사랑

Special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세상 읽기

이국의 동물원에서 생명들의
고통을 목격하다

생명존중 캠페인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만났을 때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배우고 나누며 동물과 상생을
꿈꾸는 기업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



CONTENTS

03 여는 글

반려동물 바른 행동 교육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이유

04 Special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12 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크레인

14 세상 읽기

이국의 동물원에서 생명들의 고통을 목격하다

20 견생역전

아픈 할아버지 개 한술과 천방지축 까미를
함께 가족으로 삼다

22 생명존중 캠페인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만났을 때

24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배풀고 나누며 동물과 상생을 꿈꾸는 신뢰 깊은 기업
(주)내추럴밸런스코리아

26 노석미의 자연이 빛은 에세이

27 입양해주세요

대형견은 집만 지키는 동물이 아니에요

28 활동소식

1월부터 3월까지 동물자유연대 활동소식

30 2012년 연례보고

34 행당포토뉴스

행당동 말쑥꾼들의 서울숲 나들이

35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36 올드독 동물기



함께 나누는 삶 계간지/ 2013. 봄호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 (사)한국동물복지협회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307-18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발행인 조희경 발행일 2013년 3월 28일 편집·진행 이기순 교정 강은하 표지사진 정은순

등록번호 실동바 00007 디자인·제작 Mayday GraphicStudio 인쇄 세원정밀인쇄

* 동물자유연대 매거진 <함께 나누는 삶>은 환경과 동물을 위해 재생종이 및 친환경잉크를 사용합니다.

www.animals.or.kr

함께
나누는
삶
동물보호지

어는 글

반려동물 바른 행동 교육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이유

글 조희경 대표

처음 영국에 갔을 때 보호자와 함께 나온 개들 대부분이 의젓한 걸 보고 '신사의 나라라더니 개들조차도 점잖은 건가' 하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을 더 다니다 보니, 영국 개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반려동물문화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를 만나면 그 사회가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갔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급한 일로 뛰는 듯한 걸음으로 길을 지나는데 4개월령쯤 된 강아지가 보호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만난 것이 반가워, 작은 소리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구령을 붙여 함께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개가 신이 난 듯 제게 달려들며 걸었습니다. 그때 보호자가 당황하는 낯으로 개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보폭과 맞추도록 요구하였고 개는 곧 진정되어 보호자와 함께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차 싶었고 제가 무례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아 개 보호자에게 사과했습니다. 4개월령 정도로 보이는 그 강아지는 성장하면서 사회화 과정에 있는 시기여서 보호자로부터 기본적인 생활



예절 교육을 받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일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사람이 개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호자는 개의 승차 비용을 지불한 후 당당한 손님으로 차에 탑승시킵니다. 물론 개가 탈 수 있는 칸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가 싫은 사람은 그 칸을 타지 않으면 됩니다. 차에 탄 개는 별도의 케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자가 개를 잘 붙잡고 있는 동안 개가 내대거나 사람에게 짖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권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 나가서 타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 교육이 반려동물문화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동물자유연대 사무실은 상담 전화를 받느라고 늘 분주한데요, 그중에는 인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반려견의 행습으로 인해 더 이상 개와 함께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가 어른이 된 후 바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 끌어들여져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된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이 지나치게 짖거나 심한 경우 사람을 물 수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방지하면 가족이나 이웃과 큰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 끝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들을 길에 내놓고야 맏게 되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이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려견에게도 기본적인 바른 행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도시공원 내의 일정 구역을 반려동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는 곧 인간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려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전체의 17.4%로서 인구로 환산하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가정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는 모두 70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죽을 때까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우는 10%를 조금 넘을 뿐이고, 전국적으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 매일 평균 274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반려동물을 기르고, 또 왜 버릴까요? 기르는 이유에 대한 분석과 이해는 넘쳐나지만 버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저 무책임하다고 질타만 해왔을 뿐이죠. 동물 유기는 무책임한 행동인 게 분명하지만, 유기가 쉽기만 한 결정이었을까요?

<함께 나누는 삶>에서는 반려동물의 대표로 일컬어지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법을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몇 화에 걸쳐 반려동물 바른 행동 교육법과 사회화 방법을 연재합니다. '동물을 버리지 말자', '사지 말고 유기동물을 입양하자'는 캠페인에 앞서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사는 방법'을 찾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현명한 방법

글 김광석 수의사 동물자유연대 회원

입양한 반려동물의 40% 이상이 1년 이내에 다른 곳(친구 집, 친지 집, 동물보호소 등)으로 보내지거나 유기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어 있다는 미국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보다는 수치가 더 높을 거라 예상됩니다. 금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반려동물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회사에 내가 새로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입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는 사람이 회사에 아무도 없다고 칩시다. 신입사원 교육도 없고, 업무지침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재주가 많고 열정이 넘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무엇이든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태도를 비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상사에게 소리쳐 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사는 당신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사는 그런 당신을 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당신은 어떤 지지도 못 받았고, 정해진 업무도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기도 했지만, 이내 지겨워지기 시작한 당신은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회사 쓰레기통에서 종이들을 꺼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다가 종이 뭉치 몇 개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뒤늦게 회사로 돌아온 상사가 어절러진 모습을 보자마자 당신에게 버럭 호통을 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이 이 짧은 시나리오처럼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후 득달같이 개를 입양하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개와 잘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개를 대할 때 가장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의인화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화를 참 잘하는 동물입니다. 심지어 풀과 나무에게도 의인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개에게 유기농 간식을 주고, 명품 옷을 입혀주고, 폭신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개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방법일까요?

당신이 지금 개와 반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개의 입장에서 개가 당신과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지, 개의 시각에서 당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개라면, 언어가 다른 사람이 개인 당신에게 지시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인 당신은 사람이 사람의 잣대로 마련해준 삶에 만족할까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반려견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자연 속에서 뛰어다녀며 넘치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반려인과 함께 산책하며 자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냄새를 맡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반려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일 겁니다.

날 때부터 문제견? No!

대부분의 사람이 반려견을 선택하는 기준은 3C, 즉 색깔(Color), 모양(Conformation), 귀여움(Cutie) 정도입니다. 인형을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개와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개와 처음 두세 달은 별 문제 없이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다 개가 강아지 티를 벗고 서서히 개다운 모습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와 함께 생활하는 건 그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가 큰 소리로 짖고, 집 안을 망가뜨리고, 아무 데나 배설하고, 산책길에서 만난 다른 개나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군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아로 태어난 아이가 없듯, 문제 행동을 가진 채 태어난 개는 없습니다. 개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모르는 척 지나가거나, 가두거나 혼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개의 본질적인 습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개와 원활히 소통하려면 우선 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개는 개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는 신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해주신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동물을 잘 살펴보면 개만큼 사람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과 개가 소통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

어떻게 하면 개에게 필요한 예절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개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 즉 쓸데없이 짖고, 집 안을 어지럽히고, 아무 데나 배설하는 등의 행동은 개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개의 입장에선 한 곳에만 배설하는 것이 본능에 위배되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만약 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길 바란다면, 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과 처벌입니다. 그러나 처벌로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개들에게 바로 직전의 행동을 제어하는 자극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까지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개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없을 때도 개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화장실 예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물을 주는 스티일로 화장실 예절을 가르친 경우, 대부분의 개는 주인이 있을 때는 용변을 잘 가립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는 아무 데나 볼 일을 봅니다. 처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개는 정해진 곳아닌 아무 곳에도 배설을 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용변을 아무 곳이나 봐도 처벌이 없다는 것을 개가 스스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칭찬으로 화장실 예절을 가르쳤을 때는 주인이 있을 때는 물론, 주인이 없을 때도 용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습니다. 혼이 나는 것보다 칭찬을 듣는 게 개로서는 더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더라도 개는 정한 곳에도 용변을 봅니다.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인 '앉아'도 사실 개의 입장에서선 만만하고 가벼운 행동이 아닙니다. 개는 앉아서 잘 쉴 수 없기 때문에 앉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는 원하지 않지만,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 '프리맥'의 원리가 많이 쓰입니다.

프리맥의 원리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하고 싶은 행동을 앞에 제공한다'는 원리입니다. 앞서 얘기한 '앉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개들이 보편적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행동(관심사, 취미)들은 다른 개의 엉덩이 냄새





새 달기 쓰레기통 뒤지기 맛있는 것 먹기 땅 파기 같은 것들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개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앉아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앉으면 산책 나가고, 앉으면 맛있는 간식도 받고, 앉으면 장난감도 얻고, 앉았다니 부드럽게 마사지도 받는 등의 경험을 한 개는 일단 앉기만 하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서 나열했던,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개의 행동들이 오히려 강화기제(보상)가 되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행동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프리맥의 원리와 긍정강화를 이용한 교육은 개에게 강제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람이 원하는 교육을 인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이제는 훈련 방식도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전처럼 쇼크 체인으로 강하게 당기는 훈련방법으로 고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를 개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벌을 주거나 강제하지 말고, 개의 본능에 입각한 보상과 칭찬(긍정강화)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반려견 예절교육은 힘으로 강제해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개의 본능에 입각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반려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재미있게 여겨지는, 개에게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교육, 이것야말로 인도적인 교육이며, 생방이 소용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입니다. 행복한 교육은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복한 생활의 시작이겠죠?

반려동물 공원, 우리도 이제 가질 때가 됐습니다

글 김지영 활동가 정책기획국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산책입니다. 좁은 실내를 벗어나 햇볕도 쬐이고 운동도 시키고 싶지만, 공원이나 산책로가 턱없이 부족한 도시에서 개와 함께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대형견이라면, 도심 산책은 더 어렵습니다. 덩치 큰 개는 무조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이나 이른 새벽에 개를 산책시키거나 야에 산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서 도시공원에 가보기도 하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만 잘 치우면 반려견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도시공원이지만, 종종 불편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 찬 공간에서 예민해진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을 향해 짖어 반려견 주인도 상대방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산책하던 반려견끼리 싸움이나 한쪽이 멀리 돌아가는 일도 생깁니다. 배설물 수거봉투에 배설물을 담아 깨끗이 뒷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책 중에 반려견이 배변하는 모습을 본 다른 이용자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우려면 이런 불편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반려동물 공원의 필요성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Dog Run(반려견 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뉴욕의 Dog Run 문화는 유명합니다. 뉴욕의 거의 모든 공원에는 반려견을 위한 Dog Run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Dog Run을 방문해 자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뉴욕 한 곳에만 137개나 설치된 Dog Run은 모든 사에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간단한 안전수칙들만 숙지하고 지킨다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뉴욕 사람들이 복잡한 도시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산책하기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뉴요커들에게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은 오히려 취향이 같은 이웃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휴식입니다.

01 개와 반려견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뉴욕의 Dog Run. 02 뉴욕 시내 Dog Run에서 산책 나온 사람과 개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만 치우면 합법적으로 모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무조건 '반려견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는 공원이 많다. 04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대만 타이베이 시의 공원 팻말. '이곳은 반려견 공원이 아니므로 꼭 목줄을 하라'고 적혀 있지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 05 기존 공원의 일부 구간에 울타리를 쳐서 마련한 호주 브리즈번의 Dog Park. 개들이 뒹굴 때 실수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이용으로 설치하고, 배설물 수거함을 둔 것 외엔 특별한 것이 없다.



호주에도 뉴욕의 Dog Run과 유사한 'Dog Park(반려견 공원)'가 있습니다. Dog Park 역시 Dog Run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반려동물 공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원의 일부 구역에 울타리를 쳐서 공간을 나눠 이용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의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벤치와 식수대, 쓰레기통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배설물 수거함이 따로 있는 정도입니다. 덕분에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Dog Park는 시드니에 196곳, 멜버른에 208곳, 브리즈번에 159곳이나 운영되고 있고, 뉴욕과 마찬가지로 설치와 관리는 사에서 담당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면 제일 먼저 가까운 Dog Park를 찾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주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장소입니다.

반려동물 공원, 사람을 위한 공간

반려동물 공원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온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동물보호효과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서울시의 도시공원 내 몇 곳에 반려동물 공원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1/4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400여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지자체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지자체의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울산에서 국내 지자체 중에는 처음으로 '애견운동공원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반려동물 공원 마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뉴욕의 Dog Run이나 호주의 Dog Park 같은 반려동물 공원이 곳곳에 마련돼 반려인과 개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일상 속에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크레인

글 이기순 국장 정책기획국



굶주리고 병들었던 드림랜드의 호랑이 크레인은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된 사베르카 호랑이다. 황폐화된 드림랜드에서 자신이 태어난 서울대공원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꽤나 늙어졌다. 목 뒤의 피부병도 다 나았다.

호랑이 크레인이 지난 12월 18일에 서울대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2012년 3월 <TV 동물농장>을 통해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 동물들이 굶주리고,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원도, 원주시, 강원대학교 수의대학 동물병원 등을 설득해 드림랜드 동물 치료와 시설 방역에 대한 협조를 얻어냈고, 지금까지 막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 드림랜드의 유일한 호랑이가 서울대공원에서 2000년에 태어난 크레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추운 우리 안에 방치돼 있다시피 한 크레인의 사정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먹이 공급에도 문제가 있는데다, 강원도와 토지 임차 계약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는 계속 운영할 가능성조차 낮은 드림랜드에 두는 대신 크레인이 태어난 서울대공원으로 다

시 데려오자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도 크레인을 비롯해서 건강 상태가 열려있는 유럽볼곰 한 쌍 등 일부 동물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영 동물원인 드림랜드가 소유한 동물들의 거취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대공원,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드림랜드와 함께 크레인의 거취를 논의하던 중 박원순 시장님이 11월 30일 제일 먼저 크레인이 서울대공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12월 1일 드림랜드 주주총회에서 크레인과 유럽볼곰 한 쌍을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바로 서울대공원을 방문, 크레인이 생활할 환경을 점검하고 크레인 이송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의 중재로 서울대공원과 드림랜드는 크레인 이송을 위



위 드림랜드의 좁은 우리에서 이송을 기다리고 있는 크레인
아래 이송을 위해 마취한 뒤에야 목 뒤 피부염이 발견됐다.

해 필요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인 크레인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보호종이라 동물원 간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꽤 걸릴 거라던 이야기와는 달리, 이송 협의는 지희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2월 18일 크레인을 데려오기 위해 드림랜드로 내려갔습니다. 이날 원주행에는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 크레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작별>의 황윤 감독, <TV 동물농장> 팀이 함께했습니다. 치악산의 매서운 추위보다 제 마음을 더 춥게 만들었던 건 동물원에 갇힌 야생동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하는 근원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의 이송을 온 마음으로 반기지 못했습니다. 크레인의 목 뒤에 난 상처를 보기 전까지는요.

이송을 위해 마취를 하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던 중 크레인의 목 뒤에서 큰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꽤 넓은 부위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도 드림랜드 직원들은 처음 보는 거라고 당황하며 마안해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드림랜드에는 상근 수의사도, 전문 사육사도 없습니다. 그저 관리 인원이 몇 명 있을 뿐입니다.

크레인은 몸무게가 100kg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 큰 수컷 호랑이는 200kg 가까이 된다고 하니 웬만한 암컷보다도 작고 말랐습니다. 드림랜드 직원들은 크레인이 근친교배로 태어난 개체라 송곳니도 기형이고 체격도 작은 거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드림랜드는 언론이나 동물자유연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동물들을 가둬놓고 때가 되면 먹이나 잡아넣어 주는 게 동물원의 '관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를 위해 존재하는 동물들이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게 동물원의 의무입니다. 이송 당일 아침에도 드림랜드 측 관리자는 닭을 다섯 마리나 줬다고, 절대 굶기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지만 먹이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3,000km의 세력 범위를 가지고, 하룻밤에 고기를 23kg까지 먹을 수 있다는 호랑이에게 적절한 급여량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크레인뿐 아니라 드림랜드에 있는 동물들이 평생을 생활하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물원 동물에게 지루함은 갈려 있는 것만큼이나 큰 고통입니다. 호랑이 같이 활동량이 많고 자능이 높은 동물은 작어도, 풍부화가 필요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공원에 도착한 크레인은 다행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시급한 건, 이미 무상양도 결정이 내려진 한 쌍의 유럽볼곰의 옮길 곳을 찾는 일입니다. 10평도 안 되는 텅 빈 우리에서 무료함에 지친 텅 빈 눈으로 크레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던 유럽볼곰. 이들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고 배려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없는 걸까요? 그냥 죽어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렇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



벽에 그려진 사바나, 이를 바라보는 두 아이는 동물원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나중에 두 아이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장벽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볼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란다.

이국의 동물원에서 생명들의 고통을 목격하다

글 김연중 수의사 동물자유연대 회원

설렘과 막막함이 공존했던 105일간의 항해

나의 고민,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그리고 온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개인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았던 무척 어려운 밤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이 당면한 상황을 바라보라고 한다. 동물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는 일, 우리와 동물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모색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한 나는 세상의 동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내가 치료해야 할 동물의 실체를 정작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해군에서 단기복무 중인 내게, 태평양 연안

10개국을 방문하는 훈련에 함께할 수의장교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배를 타고 105일 동안 러시아를 거쳐 북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그리고 다시 남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와 호주, 파푸아뉴기니, 중국을 방문하는 대규모 항해였다. 물론 군함에는 동물이 없지만, 예방과 검역, 방역 등의 업무를 맡을 수의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에 지원했다.

정말이지 많은 동물을 보고 돌아왔다. 이상하리만치 완벽해 보였던 미국의 유기동물보호소, 길 위에서 자생하는 남미의 개와 고양이, 멕시코의 참담한 동물원과 호주의 화려



01 당근을 주는 사람과 이를 받아먹는 기린, 우리는 이 순간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 동물원을 찾는다. 하지만 드넓은 초원이 아닌 우리에게 갇힌 채 살아가는 기린에게 당근은 행복이 아닌 그저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02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동물다운 동물이 아닌 인공적인 공간에 갇힌 채 살아가는 동물들 진짜 동물로 배워간다. 자연스레 우리는 동물은 위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

한 동물원, 사람과 동물 모두 고통 속에 살아가는 파푸아 뉴기니, 이런 다양한 상황과는 무관한 듯 푸른 바다를 헤치는 돌고래까지, 각 대륙의 동물은 비슷하면서도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세상을 보고 돌아온다면 동물을 더 잘 알게 될 거라던 내 생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여정을 시작하기 전보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이 막막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어쩌면 동물이란 존재를 알기 위해선 많은 경험보다 이를 바라보는 명철한 시선이 중요할지도 모른다. 나는 비록 정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동안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동물과 사람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동물원에 대한 거부와 동물원을 향한 향수라는 모순

이번 여정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과 멕시코 파파가요 동물원, 뉴질랜드 오글랜드 동물원, 호주 시드니 타롱가 동물원 등을 방문했다. 이제는 동물원을 꿈지 않게 바라보는 나지만, 어릴 적부터 진하게 났던 동물원을 향한 향수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외국 동물원에서 '동물원'이라는 존재를 정당화할 이유를 찾으려고 애썼다. 동물원 동물들의 삶과 이들을 가둔 사육장의 구성 및 행동풍부화 프로그램, 그리고 방문객 교육을 위한 안내판 등 동물원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역시 외국 동물원도 내가 아는 동물원과 다르지 않았다. 동물원에서 목격한 모든 노력의 흔적은 동물원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

다. 그 한계는 동물, 아니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피상하게 변질시키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나란히 입구에 선 직원들이 방문객 한 명 한 명 친절히 맞으며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찍어주는, 그리고 찍히는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 웃음이 왜 내게는 그토록 석연치 않게 느껴졌을까. 나는 화가애한 분위기를 뒤로한 채 조용히 동물원에 들어섰다. 사육장에 갇힌 동물과 이를 관람하는 사람을 계속 관찰하며 걸었다. 어느 동물원이 그렇듯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았다. 부모들은 이제 막 동물에 대한 관념이 형성될 무렵의 아이들 손을 잡고 이 사육장 저 사육장을 누비고 있었다.

발걸음은 캘리포니아 바다사자 사육장 앞에서 멈췄다.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이른바 쇼 타임이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칠 새라 우르르 몰려들었다. 잠시 후 사육사가 모습을 보이자 바다사자는 커다란 몸뚱이를 뒹뒹뚱 흔들며 콘크리트 바닥 위로 기어올랐다. 사육사가 던져주는 물고기를 덥석 받아먹는 바다사자를 보며 사람들은 마치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한 듯 몹시 즐거워했다. 부모와 아이들은 환호성을 터뜨리고 박수를 쳤다.

5분이야 지났을까. 사육사가 사육장 뒤로 사라지자 사람들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모두가 떠난 그곳을 바다사자 한 마리가 덩그러니 서성이고 있었다. 녀석은 사육사가 사라진 문을 홀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차갑고 메마른 콘크리트 수영장에서 평생을 살아갈 녀석의 한쪽 눈은 백



01



02

내장에 하얗게 말어 있었다. 나도 홀로 멍하니 녀석을 바라 보았다. 나와 바다사자는 그렇게 한참동안 웃음이 사라진 정적을 지켰다.

나는 왜 다시 동물원에 발을 들여놓았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내 아이들도 동물원에 데려오지 않겠다며 결심했었는데 말이다. '외국 동물원은 어떤지 궁금했다'는 말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을 보고픈 내 욕심의 표상일지도 모른다. 철창에 갇힌 동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나는 바라본다. 아이들에게 인간 외에 다른 생명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목적을 지닌 동물원에서 정작 아이들은 무엇을 알게 되거나 어떤 느낌을 받을까. 모든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구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할 생명을 훈련시켜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나는 동물원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보았다. 어색한 장소와 어색한 관계에서 나는 어떤 아름다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곳에서 동물들은 다양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미국을 떠나 멕시코 아카폴코에 기항한 나는 무척 당황했

01 불곰은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있다가 나왔다를 반복했다. 행동풍부화를 위해 수영장을 설치했지만, 대자연에서 연어를 사냥해야 할 불곰에게 수영장이 도움이 될 리 없다. 행동풍부화라는 동물을 가두었다는 동물원의 본질을 넘을 수 없다.

02 동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울타리 부근에 설치한 고목들이다. 이러한 시도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숨은 목적도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고목 넘어를 보지 못하게 된다.

다. 무엇보다 이곳의 거리 풍경은 한국은 물론 바로 전 기항지인 미국과도 너무나 달랐다. 거리는 병들고 굶주린 개와 고양이로 가득했다. 동물이 거리에서 자생하며 산다는 게 이런 모습일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녀석들을 하나 하나 카메라에 담고 있던 내게 한 청년이 손짓 몸짓해가며 어디로 가기를 권했다. 스페인어를 못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파파가요, 파파가요' 뿐이었다. 개와 나를 번갈아 보며 상글상글 웃는 그의 모습에 나는 파파가요란 곳에 동물이 있음을 직감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청년이 말한 장소를 찾았다. 파파가요는 다름 아닌 공원이었다. '어떤 동물이 있기에 그는 이곳을 추천했을까.' 나는 궁금한 마음에 서둘러 공원에 들어섰다. 그런데 웬걸, 안내판의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Zoologico, 스페인어지만 익숙한 단어, 바로 동물원이었다. 설마 이런 곳에 동물원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흔히 동물원은 한적한 교외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파파가요 공원은 동물원이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작았다. 나는 잔뜩 회의를 품은 채 그곳으로 향했다. 파파가요 동물원의 실상은 역시나 참혹했다. 동물들은 콘크리트 바닥과 녹색 철창으로 둘러싸인 사육장에서 살아 가고 있었다. 아니,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법했다. 다른 동물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풍부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사육사나 관리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풍경은 작은 사육장 안에 육식동물은 단 한 마리씩, 초식동물은 반대로 여러 마리가 잔뜩 가둬져 있던 것이었다. 아마도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육식동물이 서로를 공격할까 봐 취한 조치인 듯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육식동물은 독방에서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었다. 본래 집단생활하던 동물이 홀로 생활한다는 건 도태됨을 뜻한다. 설 새 없이 콘크리트 사육장을 빙빙 도는

늑대,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자기 몸을 물어뜯는 코아티 등 모두가 지독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강박 행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늑대가 있는 사육장 너머에는 사자 사육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멍하니 한곳만 바라보는 사자에 실망한 듯 철창을 미구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어쩌다 사자가 괴로움 섞인 울음이라도 내면 사람들은 아내 환호성을 질렀다. 아무도 왜 이곳에 한 생명이 갇혀 있어야 하는지 또 사자가 사자답게 사는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다. 부모도 아이도 사자의 고통 가득한 울음을 포효로 착각하고 있었다. 파파가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의 동물원에 윤집한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초식동물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초식동물에게서 또한 육식동물에게서 보여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처참한 환경이 평소 표출이 잘 안 되는 초식동물의 공격성을 끄집어내 극대화시켜 버린 거였다. 비좁은 공간에 땀이 들어찬 염소들의 발은 두텁게 쌓인 자신들의 변에

씩어가고 있었다. 서열이 높은 염소 한두 마리가 나머지 염소들을 끊임없이 핏물로 공격했다. 비로 옆 사육장의 멧돼지는 공격당하는 염소가 근처 구석으로 몰릴 때면 화가 난 듯 울타리를 온몸으로 들이받았다. 고통 섞인 울음이 파파가요 동물원에 울려 퍼졌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간혹 사육장 사이를 오가는 길고양이가 오히려 마냥 행복해 보일 정도였다.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본질

한국 전해항을 출항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넘은 12월, 우리 배는 뉴질랜드와 호주에 기항했다. 이들 국가의 검역관은 우리 배에 승선해 나와 함께 검역을 진행했다. 물론 이전 기항지에서도 철저한 검역을 받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검역

03 내게 구매충동을 일으켰던 그림이 그림이다. 행동충동화의 일환으로 그림이라 직접 그린 그림이라 좋은 의미일 줄 알았는데, 실상은 철창에 갇힌 채 손을 내밀게 해 그려진 그림이었다. 나는 눈에 보이는 너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04 쇼가 끝나자 구름같이 물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안간힘을 쓰며 떠나는 사육사를 따라가는 바다사자-, 이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기 좋은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먹으며 동물원은 계속 존속한다. 05 끝이 없는 길을 뚫어 내달려야 할 북극곰에게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반갑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km를 먹이를 찾아 걷는 북극곰이 하루 종일 누워져 있는 모습은 과연 두렵지 않을까. 허약한 위와 내장을 보고 싶다.



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는 특히 민감했다. 이전 기행지에서 농진 부분들을 검역관이 하나하나 찾아내 지적할 때면 나는 당황한 나머지 진땀이 다 났다. 일부 승조원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우리



01



02



01 메마른 콘크리트와 좁은 수경장은 행권이 있어야 할 장소가 분명 아니다. 중보전은 물론 올바른 생명교육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행권들은 그들 사이에 홀로 앉아 있는 길매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02 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 원지 모를 무가움이 느껴진다. 낯선 동물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솔며서 이 무가움을 밀어내고 다시금 동물원을 찾게 만드는 게 아닐까? 03 공원 초인 안내판에 골치하게 적힌 'Zoologico'는 비로 동물원을 말했다. 파파가오 동물원은 동물이라는 이름까지도 무색할 정도로 처참했다. 동물원도 그럴지만 이런 곳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에게 그 모습은 어색했던 거였다.

나는 그 낯설음이 좋았다. 이처럼 환경을 위하는 나라라면 동물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다르지 않을까.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라면 이전 나라들의 동물원에서와는 달리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행동풍부화’에 있어서는 어느 동물원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행동풍부화’는 우리 안에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동물, 혹은 사육사와의 교감을 통해 동물이 야생에서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뉴질랜드와 호주 동물원은 파파가오는 비교할 것도 없이 샌프란시스코 동물원보다 동물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의 크기에서부터 조명과 재질, 온도, 심지어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까지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동물을 가둬두었다는 본질은 변함없었다. 매일 다채롭게 변하는 야생에서 살아가는 동물에게 야생을 모방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터. 간혀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다. ‘행동풍부화’가 잘 접목된 동물원은 보는 이의 눈도 즐거울 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정상행동을 보이는 동물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잔뜩 어두운 마음으로 뉴질랜드 동물원을 나서던 나는 ‘행동풍부화’의 일환으로 오랑우탄이 그린 그림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림을 사고픈 충동에 휩싸였다. ‘나중에 병원에 걸어 놓으면 좋겠어. 오랑우탄이 직접 그린 그림이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와 같은 생각에 나는 어느새 그 그림과 함께 계산대 앞에서 서 있었다. 들뜬 마음에 값을 치르려는데 현금이 부족했다. 지갑도 배에 두고 온 터였다. 어쩔 수 없이 아쉬워하며 배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배로 돌아가는 동안 내 머릿속은 그림 생각으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다시 돌아가 그림을 사려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좀 더 생각을 이어가자 지금의 내 상황이 동물원의 동물을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 매우 흡사한 걸 깨닫게 되었다. 동물원에서 우리는 자연이나 야생을 그리워하며 때로는 자연에 속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순간



04



05

04 홀로 멍하니 철창 밖을 바라보는 늑대. 이 또한 정신질환 증상 중 하나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동물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잘 꾸며진 사육장에서 이를 일기만 쉽지 않은 일이다. 동물원은 그만큼 우리의 시선에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
05 정아리를 입에 문 채 우리에게 자판이라도 하듯 얼굴을 내민 아생 바다사자. 녀석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생명이 아닐까. 인간 아닌 존재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길을 모색한다면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 믿는다.

의 구분일 뿐, 아이들은 평생 사육장에 갇힌 채 살아가는 병든 동물을 보고 그것이 자연과 동물의 실재인 줄로 착각하며 자연과 동물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생명 그 자체로 살아가지 못하는 동물의 모습과 환경을 동물의 당연한 모습이나 환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이 그런 그림이기에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한 허상에 불과했다. 본래 왕살이나 부유층의 유흥을 위해 시작된 동물원은 교육이란 미명 아래 일반 대중을 미혹하고 있다.

교육 외에 동물원이 내세우는 한 가지 존재 이유가 있다. 바로 종 보전. 호주 시드니 동물원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태즈메이니아데빌을 복원하려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방문객에게 왜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자료를 통해 교육하는 모습은 분명 장려할 만했다. 그저 사육장에 갇힌 동물을 보며 동물을 향한 뒤돌린 관념을 형성하게끔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소중한 교육임이 틀림없었다.

지난 여정 동안 동물원을 방문한 후 나는 동물원이 기존 패러다임을 버리지 않는 한 올바른 가치를 함양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다. 동물원이 앞으로도 존속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종 보전에 초점을 맞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한 일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이국적인 동물을 수입해 전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

와 종 보전 대상이 아닌 동물을 가둬두는 행위 또한 멈춰야 할 것이다. 즉, 정당한 목적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동물원은 본래 종 보전을 위한 장소가 아닌 종 멸종을 부추긴 주변의 장소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태즈메이니아데빌 복원사업을 진행 중인 호주 동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식 유대류였던 태즈메이니아타이거 멸종 장소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올바른 길을 가려는 동물원의 의지와 기존 동물원의 본질을 보려는 우리의 노력이 함께할 때 동물과 사람이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2012년 11월 칠레 발파라이소에 정박한 우리 배 밑에서 큰 소란이 일었다. 바로 장어리 떼를 사냥하는 아생 바다사자가 나타난 거였다. 녀석은 장어리 한 마리를 물고 자랑이나 하듯 물 위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날 우리는 동물을 보았다.
자유로운 진짜 동물들.



아픈 할아버지 개 한솔과 천방지축 까미를 함께 가족으로 삼다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는 가끔, 아주 가끔 센터에서 오래 생활하며 나이 먹은 동물에게 가족이 생기는 경사가 일 어납니다. 2009년도에 입양된 한솔이가 그랬습니다. 한솔이는 입양된 지 3년 만에 파양된 경험도 있는 늙은 개입니다. 골반 골절 수술로 인해 뒷다리가 부실하고 나이도 많아 다른 개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한솔이. 추위는 왜 또 그리 타는지. 그렇게 안쓰럽던 녀석에게 기적처럼 가족이 생긴 거죠. 입양 간 후 한동안 이불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짠 했습니다. 얼마나 원하고 간절했던 따뜻함이었을까요. 센터에 있을 때는 다른 개들에게 곁을 주지 않던 어르신 한솔이가 함께 입 양 간 꼬꼬마 까미를 엄마처럼 챙겨주고 양보하며 지낸다고 애호가 봤습니다.



한술이, 까미 입양자 김현숙 님 인터뷰

한술이와 까미를 입양하기 전에는 반려동물들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특히 나이 많고 잔병이 많은 한술이의 입양은 입양 초보가족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알 선고 받고 투병을 했습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일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구요. 바로 유기동물 문제가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반려동물들을 키워보지 않아서 사실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제가 잘 먹이고 출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든든한 지원군이 세 팔도 있었기에 오래 망설이지 않고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까미만 생각하고 방문했는데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너무 마른 한술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술이를 보니 약하고 모자란 자식을 더 챙기게 되는 양미의 마음이 되더라구요. 처음 1년 동안은 한술이가 유난히 큰말을 거부해서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한술이는 큰말을 거부하는데 큰말은 예쁘다고 계속 다가가다가 크게 들린 적도 있어요. 까미는 암컷이라 짝짓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종간인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로 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나네요.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활동하다 보면, 가족이 병에 걸렸다고 키우던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아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감과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술이와 까미가 혼혈견이라 털이 많이 빠지는데 제가 부지런히 치우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해결 방법은 언제나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핏터를 키워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생명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한술이와 까미를 입양하고 나서 유기견 2마리를 더 구조해서 지금은 4마리와 함께하는 대가족이 됐습니다. 어떠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지금 키우는 녀석들 각정에 제 건강을 더 챙기게 됐습니다.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있구요. 함께 생활하다 보니 동물들이 생각이 참 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람에게 맞춰서 살고 있는 부분들도 보이구요. 울거울 유난히 추웠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집 안에서 따뜻하게 자는데, 더 많은 동물들을 보듬지 못해 그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동물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한술이는 이가 부실해서 사료를 잘 먹지 못합니다. 한술이 식사를 따로 마련해줘요. 외출할 때면 딸들에게 예기들 밥을 차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동물들을 섬세하게 보살피긴 힘든 게 현실이지만, '배고픔'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은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문제로 관리실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딱히 길고양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닌데, 굶주림을 모면해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각박함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더 이해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딸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시간 날 때, 형편 좋을 때 시작하는 것은 핑계'더라고요. 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동물들의 삶이 좀 더 빨리 변화될 수 있을 테니까요.



길에서 새끼 고양이를 만났을 때

글 장전아 활동가 정책기획국



길에서 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보면 예쁘고 불쌍한 마음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는 몇 달 동안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동물을 돌봐야 하는 보호소에서는 새끼 고양이만 집중적으로 보살피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동물보호소에 새끼 고양이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새끼 고양이의 경우 단체 인력만으로는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조하신 분의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구조를 실천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어미 잃은 새끼 고양이들이 길에서 짙은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구조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주세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우선 근처에 어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미 고양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 없이 혼자 있는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다 해도 먹이를 구하려 갔던 어미가 다시 새끼에게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 신발리 쓰디들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어미 고양이가 돌아왔을 때, 새끼에게서 낯선 사람의 냄새를 느끼게 되면 새끼를 돌보지 않거나 두고 떠날 수 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면 데리고 오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두고 어미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보통 생후 4개월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합니다. 이때쯤이면 야생성도 생겨 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미가 없는 어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조를 요청하거나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상태를 살펴본 뒤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독립 후 길 생활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미를 잃은 것이 확실한 새끼 고양이는 임시보호가 필요합니다



2~3일 정도 시간을 갖고 지켜봤는데도 어미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새끼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 구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조한 새끼 고양이는 구조자가 임시보호를 해야 합니다. 태어난 지 2개월 미만의 새끼 고양이는 면역력이 약해 작은 질병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살뜰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배에 미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는 새끼 고양이가 살기에 적절하거나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새끼 고양이는 생후 2개월까지는 항상 따뜻한 장소에서 체온을 유지해야 하고, 3~4시간마다 한 번씩(생후 1주까지는 2시간에 한 번) 고양이 전용 분유로 수유를 해주어야 하며, 배변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새끼 고양이를 구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구조한 후 몇 달 동안 책임지고 세심하게 돌보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구조할 때는 이후 입양 보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길러진 고양이는 야생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길에 방사해서는 안 됩니다. 야생의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 돌본 구조자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새끼 고양이가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입양처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입양처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입양보낼 때는 입양하려는 사람이 이전에 동물을 키운 적이 있는지, 가족 전원이 입양에 동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환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기본 접종을 비롯해 고양이가 아플 때 적절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지, 시료와 모래 공급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지 경제적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적당한 액수의 책임 입양비를 받거나 입양 서류를 작성하게 해서 입양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일도 잊지 마세요. 입양 서류 작성 시 입양자의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게 하세요. 이후 피양이나 유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한 고양이 수가 너무 많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입양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물단체에 외부입양 공고를 의뢰해주세요. 구조한 고양이의 사진과 간단한 정보를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면 새로운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풀고 나누며 동물과 상생을 꿈꾸는 신뢰 깊은 기업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

글 윤정임 국장 반려동물복지센터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 김용현 대표이사 인터뷰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와 인연은 2008년 입양동물의 날 행사 후원을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 후원을 요청했다 무산돼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흔쾌한 후원 승낙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는 이후 매년 입양동물의 날, 후원의 밤 등의 주요 행사는 물론 반려동물복지센터에 매달 정기적으로 사료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유기동물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를 기획해서 수익금 전액과 후원물품을 동물자유연대에 기부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에 항상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는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의 성장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2001년도에 미국의 Natural Balance Pet Foods사의 제품을 국내에 처음 수입했습니다. 2003년부터 국내 반려동물 전문가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했고, 2005년 5월에 회사를 재정부에서 오늘의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시작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반려동물 식품으로는 생소한 내추럴 푸드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웠고, 높은 소비자 가격 또한 전문가들에게조차 접근되기 어려웠지만 판매 가격을 낮추고 온라인을 통한 제품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반려동물 지식 제공, 철저한 고객관리를 통해 지금은 매년 20~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는 '행복을 주는 깨끗한 기업'을 모토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모든 제품을 전문가의 검증과 조언을 통해 안전하게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프라인 영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판매방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다소 불편한 점이 있지만, 식품의 안전관리 면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오프라인 판매에만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많은 전문가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다디자인 항상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 고객 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을 잃지 않는 자세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가 유기동물 관련 행사와 기부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우리나라에 유기동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은 어떤 이유에서든 굶주리는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마음드는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결심하고 난 뒤, 2004년 가을부터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유기견을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해서 현재 교육기관 8곳, 동물보호단체 2곳, 유기동물보호소 5곳에 매달 정기적으로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초기에는 교육기관과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수익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게을리한다면 기업의 존재 가치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의 사회적 책임 중 1순위는 동물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라 여기고 매년 기부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인 지원 요청의 경우에도 이익을 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 안타까웠는데 요즘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부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람을 느낀다기보다 그냥 미땅히 회사가 해야 할 일,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분, 동물자유연대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를 후원하는 씨앗 후원도 진행하셨습니다. (올해)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 있나요?

홈페이지를 통한 씨앗 후원을 보강해서 더 많은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중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와 함께 매월 1돈씩 사설보호소 4곳을 추가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는 어려움에 처한 사설보호소에 좀 더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건립돼서 보호동물 수가 많아지면 지원을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은 동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가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시나요? 기업의 이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모두 같이 보편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남치지도 못차리지도 않는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며 어렵고 힘든 유기동물들에게 사랑

을 베푸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의 설립 이념입니다. 아울러 미국 본사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저 또한 동물 친화적 기업으로서 동물실험을 포함한 동물학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같이 존귀합니다. 동물에게도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런 사회를 아득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1년에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동물학대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한국 사회의 동물 문제를 목도하며 기업으로서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동물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및 보호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할 것이며 주내추럴발란스코리아도 가입되어 있는 (사)한국펫시료협회와 함께 유기동물 관련 캠페인 및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언제나 고통 받는 동물에 대해서는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봄

하리케인 프랭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지만, 모건 브랜치의 동물들은 예전의 삶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죽은 나무들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나무들은 여전히 묵묵히 살아갔다. 삶과 죽음을 동시에 살고 있는 나무들도 있었다. 쓰러졌지만 여전히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나무들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잎을 피웠다. 수평으로 드러누운 줄기에서 솟은 햇가지들은 햇살을 찾아 수직으로 올라갔다. 이런 햇가지들은 땅과 맞닿은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남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면, 햇가지들은 그 기원을 드러내는 줄기를 따라 일렬로 늘어선 것이다. 희망과 용기는 그들의 삶을 위한 투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그들은 저주받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씨를 뿌리었다. 테르모필레(Thermopylae: '열의 관문'이란 뜻)에서 3백 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수천의 페르시아병사들과 싸웠던 것처럼 - 윌리스 카우프만 <길을 잃는 즐거움> 중

봄이 왔다 긴긴 겨울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연다. 스멀스멀 스멀스멀.....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가 그 기원들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나도 당당히 가지개를 켜다.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기분이 좋아진다. 인간은 존재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한다. 사실 존재감을 자각하는 순간은 드물게 일어난다. 왜 그럴까? 사는 게 바빠서? 음... 불순한 나는 어쩌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내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한다. 다시 창문을 닫는다. 일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고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리가 잘되어 익숙해진 내 굴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환기는 다림과 칠푼한 공기가 정화되는 잠깐 동안만, 쾌락의 순간엔 그 즐거움이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절제를 소유도 그 그들이 날 덮치지 않을 정도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놓고선 또 생각한다. '에이 뭐야?!

아제의 나를 알기에 내일의 너를 예측하는 나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인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좀 더 알아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아닌가? 봄이 와

서 기분이 상충생물해자사인지 따스한 이불 속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괜히 이런저런 두정을 부려 본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같은 종족인 인간이 다른 생물체들에 비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인간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위에 더 커다란 카테고리, 생물은 다 같은 이치(理致)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가끔 불순한 나는 멍하니 생각해보곤 한다. 나는 대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인간들이 대체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생물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저기 저 풀은 자신이 풀임을 알고는 있는가? 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 모를 별래는 가끔 바쁜 일들로 신선한 공기가 방해가 되기도 하는지?

2013년 3월 노석미



입양해주세요

대형견은 집만 지키는 동물이 아니에요

글 손혜원 활동가 반려동물복지센터



선입견이란 참 고치기 힘든 건가 봅니다. 소형견은 집 안에서 사람들과 알콩달콩 지내는 개고, 대형견은 집을 지키는 동물이라는 것도 뿌리 깊은 선입견 가운데 하나겠죠. 반려동물복지센터에서 생활하는 대형견들의 입양 상담을 하다 보면 공장이나 영업장을 잘 지킬 것 같다고, 또는 마당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시골 살아가 더 무서울 것 같라며 신청하는 분이 대부분이라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조한 대형견들은 오진 학대와 오랜 방치로 고통 받던 동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동물을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반려견이 아닌 경비견으로 입양 보내 한 번 더 상처를 줄 수는 없죠. 그래서 대형견 입양 상담은 더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또한 큰 개가 생활할 만한 조건을 갖춘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품종 있는 대형견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반려동물복지센터의 대형견들에게 입양의 기회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흔혈견이라고 해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작은 개들보다 애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추위를 덜 타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견들도 소형견들 못지않게 애교 많고, 사람 손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대형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다가가 보세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한 웃음과 애교로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유롭게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대형견의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이 상상을 실천으로 바꿔주실 분, 빨리 손들어주세요.

활동소식 2013년 1월 ~ 2013년 3월



CJE&M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3탄

'정재형과 하양이' 편 촬영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3탄의 주인공은 하양이와 정재형입니다. 촬영 내내 능숙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준 하양이에게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효리, 박칼린 님에 이어 재능 기부해 주신 정재형 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 비리 대응

2012년, 성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유기동물 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해당업체 관계자들의 처벌과 2013년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동물자유연대에서는 해당 지자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를 떠돌던 인천 간석동 누더기견 구조

구조 당시 청아는 털이 많이 뭉쳐 있었고 집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지 향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심장사상충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행당동에 온 뒤로도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던 청아가 하루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애교쟁이로 변신해주길 기대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모피동물 'Fast Facts' 캠페인 전개

겨울을 맞아 '리본'에 대한 간단한 상식 알리기(Fast Facts) 캠페인을 SNS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옷의 장식으로 쓰이기 위해 희생되는 리본이 그저 겨울옷의 소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리고자 진행한 이 캠페인은 네티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포 쓰레기장에서 시추 구조

시추 한 미리가 한쪽 눈이 빠진 채로 김포의 한 쓰레기장에서 먹음 걸 뒤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가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다친 눈은 적출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착한 청운이와 평생 함께할 가족을 기다립니다.



공연으로 축하당하는 퍼시픽랜드 돌고래들에게 희망이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형소, 상고를 거듭하면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는 퍼시픽랜드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3월 중에 물수형으로 확정될 것으로 기대돼, 돌고래들이 제돌이와 함께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베트남 여행 상품에서 곰 농장 방문 제외

대구 TBC에서 판매하는 'TBC 문화탐방 베트남 여행상품에서 관광객들을 불법 곰농장으로 인도해 곰 쓸개즙 판매를 일선한다는 제보를 접하고, 해당 여행사를 설득해서 곰농장 방문을 일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동물자유연대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상품 정보에도 기재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거리 캠페인 진행

2월 14일, 광화문에서 '특별한 밸런타인데이 추억 만들기'란 컨셉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토끼 마라피를 쓰고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16차 정기 총회

2월 16일, 대의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2012년 활동과 재정 보고, 2013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이 있었고, 법인 명칭을 한국동물복지협회에서 동물자유연대로 변경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부산지부 설립 준비 모임 열려

2012년 7월 12일 임시총회를 통해 설립이 승인된 부산지부를 2013년 6월까지 개설하기 위해 2013년 2월 22일에 부산에서 준비 모임을 열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 회원이 32명이나 참석하는 등 모임의 열기가 대단했다고 하네요.

2012년 연례보고

1. 반려동물

1) 길고양이 인식 개선 및 TNR 홍보

- 길고양이 TNR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안산·부천 등)
- 고양이 폭소포자충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지역 캣맘 활동 지원(인천 캣맘 폭행 사건, 성남시 TNR 비리 등)
- 서대문구 길고양이 확대사건 수사촉구



2) 대형 마트 동물 판매 금지 운동

- 몰리스펫샵 동물 판매 실태 보고서 발표
- 60일령 미만 강아지 판매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개점(대전 월평점, 대전 터미널점, 경기 분당점) 고발



위어드로 몰리스 펫샵
동물 판매 실태 보고서

2012. 10



3) 개 식용 반대 캠페인

- 개식용 반대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 초복·중복·말복 거리 캠페인
- 개 도살 금지 캠페인 리플릿 발송을 통한 1인 캠페인



4) 서울시 반려동물 공원 설치 제안

- 2012 희망서울정책박람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제안
-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 해외 사례 홍보
-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



5)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관리 실태 감시 및 개선 노력

- 성남시, 여주시 등 유기동물보호소의 허술한 관리 및 불법에 대응
- 서울시, 성남시, 광주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TNR 사업 논의 참여



2. 농장동물

1)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과 돼지 스물 사육 반대 거리 캠페인



2) 산유축진제 사용 반대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3) 기타

- 정부의 소 값 파동 대책 반대
- 구미 불산유출 사고 지역 내 동물 폐기 계획 철회 요구
- 동물운송도축 세부규정 고시 입안 대응

3. 실험 동물

1)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를 위한 국제 연합인 크루얼티 프리 인터네셔널(Cruelty Free International, CFI)의 한국 파트너로,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를 위한 국제 연대에 참여해 공동 활동 중
- 동물실험 하지 않는 국내외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서명운동 등 온·오프라인에서 공동 캠페인 진행
- 화장품동물실험 반대 운동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BeNiceto Bunnies(www.benicetobunnies.org) 운영



2) 기타

- 서울대학교 공철건 은퇴 후 인도적 처우에 대한 노력
- 동물실험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 영장류 실험 관련 영화 사회 참여 등
- 일선 학교 및 기관의 동물 해부실험 사례발 대응

4. 오락·전시 동물

1) 동물의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 반대

- 청계천 말마차 운행 중단
- 부산영도다리축제의 절영마차체험 등 중단 요구
- 한대백화점을 비롯 무분별한 소규모 동물전시 중단 요구



2) 원주 드림랜드

- 드림랜드 동물을 위한 먹이 지원
- 크레인, 서울대공원으로 귀향



3) 사육곰 폐지 운동

- 애니멀 아시아(AAF)와 중국산 곰 쓸개즙 반대를 위한 국제 연대
- 국내 사육곰 폐지를 위한 연구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



5. 야생동물

1) 해양생물 전시 중단 및 방류 노력

- 서울대공원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소 중단 및 방류
- 울산 생태체험관 돌고래소 중단 요청 및 돌고래 포획계획 반대
- 한화 아쿠아플라넷 고래상어 서식지 방류
-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 물수령 판결 견인



2) 모피 반대 캠페인

- 라쿤-밍크의 진실을 알리는 Fast Facts 캠페인
- 회원, 일반 시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캠페인 참여 조직



6. 동물 복지 정책 제언

1) 18대 대선후보에게 동물복지정책 제언



7. 동물학대 대응

1) 학대 동물 구조 및 대응

- 1,200여 건의 동물 학대 대응 및 동물 상담 진행
- 동물 학대 사건 고발 15건 중 기소 8건, 불기소 4건
- 구조보호관리 동물 300여 마리

8. 배분 사업

- 1) 사설보호소 - 총 3천여만 원 분량 사료 지원
- 2) 다음 희망해 모금 심사 담당

2012년 회계보고

언제나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동물자유연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오랫동안 염원하던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완공되는 해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짓는 센터! 만큼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도 알뜰하게 살림해서
운영의 일부를 건립 기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지금까지 '동물보호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버리고, 제대로 지어진 건물과 병원,
난방시설, 운동장 등을 갖춘, 동물복지문
실현하는 보호소가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가
대한민국 동물보호소의 기준을 제시하는
보호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당기 결산내역

계정과목	금액	
수입총액		1,795,567,982
I. 수입액		1,660,976,580
1. 후원회비	1,209,363,722	
2. 후원금	183,910,734	
3. 보호소 후원금	267,702,124	
II. 기타수입		49,867,413
1. 이자수익	20,785,075	
2. 잡이익	284,408	
3. 예수금	28,797,930	
III. 다음 회계연도 배분		84,723,989
지출총액		1,531,155,378
IV. 사업비지출액		751,000,989
1. 전신통물 복지 사업비	36,141,615	
2. 실험동물 복지 사업비	1,788,781	
3. 농장동물 복지 사업비	1,671,143	
4. 반려동물 복지 사업비	131,182,142	
5. 행사 및 캠페인	26,401,228	
7. 급여	311,798,517	
8. 연구활동 조사비	17,020,159	
9. 복지급여	19,694,760	
10. 복리후생비	18,444,790	
11. 예비교류비	188,900	
12. 통신비	2,942,740	
13. 수도 광열비	6,583,560	
14. 세금과 공과	529,180	
15. 임차료	17,160,000	
16. 보험료	1,019,796	
17. 차량유지비	7,185,404	
18. 도서인쇄비	16,389,100	
19. 소모품 & 비품비	10,704,370	
20. 지급 수수료	44,935,004	
21. 우편 발송요금	10,876,020	
22. 잡비	918,100	
23. 대외 협력비	10,650,710	
24. 4대 보험료	24,591,300	
25. 차량구입	32,183,670	
V. 보육원 건설비		377,930,040
VI. 보육원 건립 예치금		289,772,084
VII. 다음 회계연도 배분		82,673,231
VIII. 기타지출		29,779,034
1. 집손실	337,060	
2. 선급비용	955,674	
3. 선납세금	2,901,780	
4. 예수금	25,584,520	
IX. 당기순이익		264,412,604

보육원 건립기금 현황

년도	수입액		지출액	잔액
	후원금	단체적립		
2010	77,578,700	130,000,000	0	207,578,700
2011	227,440,967	450,000,000	0	677,440,967
2012	267,702,124	400,000,000	377,930,040	289,772,084
합계	572,721,791	980,000,000	377,930,040	1,174,791,751

행당동 말썽꾼들의 서울숲 나들이

글 윤정임 국립 반려동물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복지센터는 차와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좁은 주택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손이 부족한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가끔 산책 봉사자가 와도 마땅히 산책할 산책로가 없습니다. 하여 나날이 삶이 불어만 가는 주디, 깜식이와 무료하다 답답하다 외치는 갑돌이가 서울숲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울 갑돌 씨의 행복에 겨운 표정이 보이시나요?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행당동 천사들과 함께하는 서울숲 나들이 어떠신가요~





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관리되는 모든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와 종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구조 및 입양 확대 현장 조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동물학대 예방 캠페인, 국제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 국제 연대, 동물복지 연구 조사 활동, 동물복지 정책 협력 및 자문(정부기관 및 다수의 언론기관) 등

반려동물 유기동물의 증가를 막기 위해 중성화 수술 캠페인과 재입양 캠페인을 진행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강화 운동과 올바른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토록 합니다.

농장동물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비인도적인 사육 방식을 금지하고 농장동물의 사육과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실험동물 실험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화장품 등을 비롯해 불필요한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이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락동물 동물이 유흥과 오락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을 모니터링하여 학대 요인을 방지하며,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위한 캠페인과 입법을 추진합니다.

★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하면!

동물자유연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법인)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뉴스레터, 계절마다 동물보호 기간지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학대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오락동물 등의 동물복지 캠페인 활동, 동물보호원 건립, 동물보호법 및 관련 제도의 강화 요구 등에 사용됩니다.

★ 어떻게 후원할 수 있나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animals.or.kr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매달 정기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조성된 후원금은 동물자유연대의 사업을 더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계좌 **국민은행** 806201-04-005468

농협 015-17-002592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문의 T. 02-2292-6337 F. 02-2292-6339

E-MAIL admin@animals.or.kr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는 '동물자유연대'의 법인 명칭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올드독 동물기

개가 개를 키우는 그림은
좀 이상하니까 오늘은
반려견 두 마리와 살고 있는
만화가 J씨의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
좋은 점이 되냐는 질문을 이따금 받는다.

하지만 친절성과 설득력을 겸비한 대답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상념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다.



아무런
웃을 일이
없을 때조차
저를 웃게 해주고
도...



과학자이자 스티븐 부디안스키는
이렇게 간파했다.



개가
인간을 위해
봉사한다는 내용의
문장 이야기는 많지만
사실 자기 밥상을
제대로 해내는
개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어쩌면 나는 점점 더 그들에게
종속되어 가는 것일까? 어쩌면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을 이별에 지레 겁을
먹고 헛된 공상에 빠져들곤 하는 것일까?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도 웃음 짓게 되는 것,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별은 상상하기도 싫은 것,
자꾸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
이런 상태를 이르는 두글자 짜리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지만 닭살 돋아서 차마
말로는 못 하겠다.

아이씨,
내 책에다 또
오줌 싸냐,
너!!!



그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의사소통.
서간 결과 후 혼내줘야 개는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걸 배울 혹은
전혀 이해 못하고 무만 부글부글
끓입니다.

